

어린이날의 행복...놀이터가 된 미술관

내달 4-5일 전남도립미술관 어린이 아트데이

어린이와 가족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창작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체험형 행사가 마련된다.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4-5일 이틀간 '2026 전남도립미술관 어린이 아트데이'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술관 실내의 광장 곳곳에서 진행되며 체험과 공연, 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체험·공연·워크숍 등 가족 참여 프로그램 '다채'

이번 행사는 ▲상시 체험 프로그램 4종 ▲전시 연계 워크숍 1종 ▲공연 2종 ▲포토부스로 운영된다. 상시 체험 프로그램 '스텝 투아: 미술관 속 작품을 찾아라!'는 미술관 곳곳에 전시된 작품을 찾아 탐험 지도를 완성하는 활동이다. 어린이들은 미션을 수행하며 작품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공간을 탐색할 수 있다.

'바다 드로잉: 우리들의 예술 로드'는 야외 광장 바다를 도화지 삼아 분필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공동 창작 프로그램이다. 광장 전체를 활용해 상시 운영된다.

'입체카드 체험: 나만의 미술관 만들기'는 미술관 건물과 소장 작품을 담은 입체 카드를 조립하고 색을 입히는 활동으로, 어린



이들이 미술관의 구조와 이미지를 새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족체험: 우리가족 얼굴 그리기'는 가족 구성원의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며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세밀한 관찰을 통해 가족 간 교감을 유도한다.

전시 연계 워크숍 '내 손안에 무릉도원: 수목 무드 등 만들기'도 마련된다. 현재 진행 중인 기획전 '직한 허탈재, 삶을 품다'와 연계해 작가의 작업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상상 속 섬 무드 등'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6세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15팀을 대상으로 총 3회 운영되며, 인터넷 사전 예약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연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5월4일에는 버블 퍼포먼스와 마술을 결합한 '버블 매직쇼'가 열려 관객 참여형 무대를 선보인다. 5월5일에는 친근한 캐릭터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 인형극'이 펼쳐진다. 두 공연 모두 야외 광장에서 진행되며 현장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우리 가족 인생 네컷' 포토부스도 상시 운영돼 방문객들이 현장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

현재 미술관에서는 허탈재 전시를 비롯해 쿤 반 덴 브룩의 '지구의 피부', 기증 소장품전 'GOOD MORNING MR. PAIK & JUNG - 정기용 컬렉션: 백남준, 존 케이지, 요제프 보이스가 그린 우정의 지도'가 열리고 있어 다양한 전시 관람도 가능하다.

이지호 관장은 "어린이들이 예술 안에서 상상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현대미술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가족이 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가정의 달 '사랑실은 노래봉사단' 특집공연

내달 6일 귀일민들레집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이 가정의 달 외로운 이웃에게 따스한 무대를 선사한다. 오는 5월6일 오전 10시30분 북구 귀일민들레집에서 열리는 제5회 특집공연이다.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바쁜 일상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 시설 소외 계층과 함께 노래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무대에는 가수 채나리·나혜진·최진필·이광복·나미숙·도술라를 비롯해 이카루스팀의 댄스 공연, 이코러스합창단의 합창, 발리댄스, 순가락장단, 고고장구, 대금연주, 색소폰 등 다양한 장르 출연진이 참여한다.

한편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은 각 방송국 가요제 및 노래자랑에서 입상한 공무원, 회사원,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 1983년 창단 이후 매달 정기 공연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 /최명진기자

불 꺼진 목포자연사박물관 탐험하며 이색 체험

어린이날 맞아 내달 4일 '프라이빗 나이트 투어'

오는 28-30일 참가자 60명 선착순 모집

어린이날을 앞두고 불 꺼진 전시실을 손전등 하나로 탐험하는 이색 체험이 마련된다.

목포자연사박물관은 오는 5월4일 오후 7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야간 특별 프로그램 '프라이빗 나이트 투어'를 운영한다. 기

존 낮 시간대 관람에서 벗어나 어둠 속 전시 공간을 탐험하는 방식으로, 색다른 박물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손전등에 의지해 박물관 소장품을 둘러보며 미션과 퀴즈를 해결하는 '탐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전시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장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되며, 어린이날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험 쿠폰도 함께 증정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28일

부터 30일까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12팀(최대 60명)을 모집한다.

임전택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야간 관람을 통해 같은 공간에서도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퀴즈 이벤트를 통해 소장품을 보다 흥미롭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월5일 어린이날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야외광장에서는 '2026년 하하호호 어린이날 통합축제'가 열린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자연사박물관, 생활도자박물관이 참여해 대형 공룡 별문 전시와 스텝 투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28일부터 9일간 설치되는 대형 공룡 별문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목포=정해선기자

"전국 과학관 하나로"

국립광주과학관, '사이언스 패스' 참여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이 전국 국립과학관 통합 관람 서비스 '사이언스 패스(Science Pass)'에 참여하며 연간회원 혜택을 확대한다.

'사이언스 패스'는 연간회원제를 운영하는 전국 국립과학관 가운데 한 곳에 가입하면 다른 과학관의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광주를 비롯해 과천, 부산, 대구, 강원 5개 국립과학관이다.

이번 시행으로 광주과학관 연간회원은 해당 과학관 외에도 과천·부산·대구·강원 국립과학관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운영하는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감사 기념품도 제공된다.

기존 연간회원은 별도 신청 없이 매표소나 안내데스크에서 회원증을 제시하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연간회원은 '사이언스 패스'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과학관 내에서는 트리플패스 관람료 무료, 특별전시 30% 할인, 특수영상관 무료 이용, 주차요금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최명진기자

영유아와 함께 '생애 첫 극장 나들이'

ACC-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공동제작

내달 2-3일, 9-10일 어린이극장서 무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영유아들의 생애 첫 극장 경험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ACC는 오는 5월, 3개월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더 어린 관객을 위한 극장' 사업으로 개발된 '흔들흔들 우주(사진)와 봄·여름·가을·겨울 숨숨숨'을 어린이극장 무대에 차례로 선보인다.



'더 어린 관객을 위한 극장'은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이 2018년부터 영유아 공연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연구·개발·제작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ACC는 지난해 공동제작과 시범 공연을 거쳐, 올해 완성도를 높인 본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서울 종로 아이들극장, 노원

어린이극장으로 무대를 확장해 더 많은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5월2-3일 영유아와 보호자, 임신부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연극 '흔들흔들 우주'는 나주에 근거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 전문 극단 '마실(연출 손혜정)'의 작품이다. 임신-출산-양육 과정을 경험한 연출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신부, 보호자와 아기가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움직임 연극을 선사한다.

이어 5월9-10일 무대에 오르는 '봄·여름·가을·겨울 숨숨숨'은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 '옴뎀(안무 진향래)'이 참여했다. 자연의 소리와 리듬, 동식물의 움직임,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경험을 담아 영유아에게 '숨'이라는 자연스럽고 본질적 감각을 느끼게 한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시내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p>지방 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	---	---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